

사회

광주, 12월부터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

귀찮다고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 동구의 단독주택에서 미혼인 아들(34)과 함께 사는 박모(72)씨 부부는 매일 한차례씩 1300원짜리 납부필증을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박씨가족이 한달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평균 50ℓ 정도지만 주 택 거주자는 쓰레기양에 상관없이 1300원(정액제)만을 부담하면된다. 박씨 부부는 오는 12월부터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요금제가 이 같은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뀔에 따라 버리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1000원 정도 늘어난 월 2300원을 내야한다. 종량제가 되면 버릴때마다 그 양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을 붙여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절감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기존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

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125㎡ 이하)은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가구당 매월 한 차례만 1300원짜리 납부스티커를 붙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던 방식에서, 버릴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3ℓ·6ℓ)에 맞는 납부스티커를 구입해 부착·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20만6196 가구다.

현재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요금제는 월 1회 납부필증(단독주택 6ℓ/1300원·소형음식점 20ℓ/1만2500원)만 붙이면 사실상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다. 시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은 ℓ 당 46원, 소형음식점은 ℓ 당 7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부분 종량제로 ℓ 당 55원을 받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ℓ 당 63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처리비용도 연 241억원에 달해 종량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중인 대전시 등은 종량제 이후 요금 상승에 따른 주민반발, 매번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종량제로 전환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요금제 = 정액제와 부분 종량제, 종량제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정액제는 매일 한차례씩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하고, 부분 종량제는 아파트에서 총 배출량을 거주 가족수와 상관없이 가구수대로 나눠내는 것이다. 종량제는 배출하는 양만큼 요금을 낸다.



진도 오유리 해역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도굴범 잡고보니 "진도해역에 청자" 내일부터 본격 수증발굴 조사 착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6일부터 진도군 고군면 오유리 해역에서 고려청자를 찾기 위한 수증발굴 조사가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오는 11월26일까지 진행된다. 발굴 대상지는 지난해 도굴범들이 청자배출을 비롯한 보물급 고려청자 9점을 팔려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도굴범에게서 압수한 청자가 양질임을 확인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이 해역에 대한 긴급 탐사를 실시, 고급 품질의 고려청자 파편과 맞돌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본격적인 수증발굴조사 진행에 따라 고려청자 생산과 소비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교권침해 급증

광주 283건·전남 158건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교권 침해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 제출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모두 527건이

었다. 광주지역의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6건이었으나, 올 1학기에만 283건이 발생해 18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에서도 2009년 5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들의 교권침해는 대부분 폭언·욕설이나 수업진행 방해였다. 교사 성희롱·교사폭행도 사례도 광주 6건, 전남 8건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험금 부풀린 노인요양병원

부당청구액 420억...2년새 10배 가까이 늘어

전국적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2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 광주는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가운데 부당청구액 증가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이복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급 시·도별 현황(2009~2011년)'에 따르면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

가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로 부당청구 건수가 520건에서 2만 461건으로 40배 증가했고, 부당청구액도 2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320배나 증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eatur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sea temperature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and a 6-day weather outlook table.

매년 오른 교복값 (Annual Increase in School Uniform Prices) article discussing the rising costs of school uniforms in Gwangju and Jeonnam, comparing current prices to those from 2009.

Large advertisement for Hyundai Power Sale (현대백화점 POWER SALE) featuring clothing brands like Polo, MCM, and Blackyak. Includes promotional text, product images, and pricing details.